

11월 ASI 95.2 기록

3개월만에 하락 반전

이충관 / 한국광고주협회 ASI조사팀장

11월 광고경기가 3개월만에 100 이하를 기록하며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업종별 4대 매체 기준 3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경기실사지수(ASI)를 조사한 결과 11월 ASI전망치가 95.2를 기록했다.

월별 ASI가 100 이상이면 광고경기가 지난달보다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는 광고주가 더 많고, 100 이하면 부진할 것으로 생각하는 광고주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11월 ASI 수치가 하락한 것은 10월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펼쳤던 것에 대한 반락 요인과 함께, 기업 결산에 따른 단기운용 가용 광고비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경기지표가 주춤함에 따라 광고를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매체별로는 신문(100.0), 케이블·위성(101.8), 온라인(101.1) 등은 호전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조사된 반면 TV(92.4), 잡지(97.6), 라디오(89.1) 등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컴퓨터·정보통신(111.4), 유통(111.0), 음식료품(104.9) 등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제약 및 의료(63.7), 금융(72.7), 패션 및 화장품(84.9), 건설·건재·부동산(88.7), 가전(87.1), 출판·서비스·기타(89.8), 가정 및 생활용품(93.9), 자동차·타이어·정유(98.0) 등은 광고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 ASI 추이

구 분	01.11월	01.12월	02.1월	02.2월	02.3월	02.4월	02.5월	02.6월	02.7월	02.8월	02.9월	02.10월	02.11월
전 망	88.5	91.6	101.0	124.8	134.7	122.8	122.7	97.5	76.9	86.8	119.7	109.9	95.2
실 적	82.3	88.1	101.9	109.1	124.3	117.7	123.3	112.8	70.3	91.9	116.2	85.9	-
누적치	89.7	81.3	82.3	107.1	141.8	164.6	187.3	184.8	161.7	147.5	167.2	177.1	172.3

내년 광고경기 올해보다 호전 전망

2003년 ASI 114.6 기록

홍헌표 / 한국광고주협회 ASI조사팀 대리

내년도 광고경기는 올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업종별 4대 매체 기준 3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경기실사지수(ASI)를 조사한 결과 2003년 ASI 전망치는 114.6을 기록했다.

ASI가 100 이상이면 광고경기가 올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는 광고주가 더 많고, 100 이하면 부진할 것으로 생각하는 광고주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광고주협회는 최근의 경제지표가 불안하게 나타나고, 내년에는 월드컵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03년 광고와 관련하여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구조조정과 합병, 자회사의 설립, 이동통신의 금융업 진출, 틈새 가전시장 및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뜨거운 경쟁, 업종간 모호해지고 있는 경계 등 경쟁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광고를 포함한 마케팅 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03년 ASI원지수(131.3)와 AS이중지수(114.6)가 큰 편차를 보였는데, 이는 중소형 광고주는 광고예산을 늘리고, 광고경기에 파급효과가 큰 대형

광고주는 광고예산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유통(167.3), 음식료품(145.4), 제약 및 의료(141.0), 출판·서비스·기타(140.0), 가정 및 생활용품(140.2), 건설·건재·부동산(115.0), 패션 및 화장품(109.7), 자동차·타이어·정유(105.1) 등은 호전될 것으로 조사된 반면 가전(74.7), 컴퓨터 및 정보통신(84.8), 금융(79.1) 등은 부진할 것으로 조사됐다. 

